

향기로운 삶

올 때는 힐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함박눈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그 나그네여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110쪽

누군가를 그리워 한다는 것은
가슴 한 권 켜켜이
흰 눈이 쌓여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2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홀로 있고 싶을 때
나는 훌쩍 나그네길에 나선다

법정스님 2주기 추모 이시장 말씀 / 덕운 10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특별 기고 / 변택주 13 서로서로 보듬어
곱다라니 물들이고 물드는 삶

스님께 드리는 글 18 스님! 평안하십니까?

차 내음 가득한 시간 24 신이 내린 영약, 인삼밭골차

한국의 탐 / 박희준 26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맑고 향기롭게 소식 28 중앙,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32 2. 3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2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04호 / 등록번호 라06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이상조 / 편집인 홍정근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6-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6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다시 읽는 산방한담

홀로 있고 싶을 때

나는 홀떡

나그네길에 나선다

'버리고 떠나기'에서
스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산중에서 단순하고 단조롭게 살고 있는 나는, 바로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이나 어제 겪은 체험으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 내 삶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글은 써지지 않는다. 활자화된 글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읽게 되지만, 나는 글을 읽을 대상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가까운 친지에게 편지를 쓰듯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쉬운 단어를 골라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p.10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고적 그대로인 오두막에서 나는 꼬박 열하루를 지냈다. 내 팔자가 그러듯이 어디를 가나 손수 끓여 먹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 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p.17



이 오두막에서는 시냇물 소리를 베고 잠들었다가 새벽 새소리에 잠에서 일어난다. 휘파람새와 머슴새가 뒤꼍에 날아와 나를 깨운다. 어둠이 사라지고 창호에 밝음이 서서히 번져오는 여명의 시각, 내 의식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맑고 신선하다. 꽃망울로 묶여 있던 의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이런 순간 나는 삶의 고마운 속뜻을 거닌다. 지난해 늦가을 지중해 연안에서 감명깊게 읽었던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감>에 박혀 있던 귀한 메시지가 이 산골의 오두막에까지 울려오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알맞은 삶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일단 그의 삶을 찾았을 때 그것은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삶이란 당초부터 없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바란다. 그러나 그 안정과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성의 높이요 함정일 수 있다. p.32

지난 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정한 밤하늘에 황홀하게 돌아난 별들을 나는 고개가 아프도록 쳐다보았다. 장육진 화백이나 백영수 화백의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리가 뺄뻑하게 가로놓인 아이들은, 지상의 현실이 아니라 별이나 구름, 혹은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느라고 그리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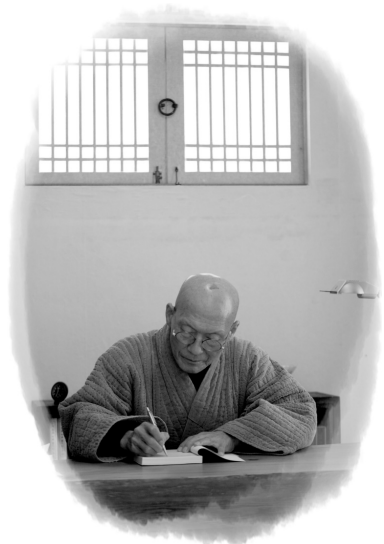
그러나 별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누워서 보아야 편하고 아늑하다. 지난해 여름 담양에서 잔 대평상을 나는 오로지 밤하늘에 별을 누워서 바라보기 위해 구해놓았었다.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게라 뒤꼍에 세워둔 채 지난밤에는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자는 일보다는 한 밤에 일어나 별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는 훨씬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된다. p.48

서울에서 일을 보고 휴가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같이 떠나네 시간 남짓 달린 끝에 오두막으로

가는 개울가에 이르니 징검다리가
 불어난 개울물에 잠겨 건너갈 엄두
 를 낼 수 없었다. 아, 이때의 어처구
 니없는 허망함을 무엇에 견주리. 알
 아보니, 동해로 빠져나간 태풍의 영
 향으로 영동지방에는 나흘 동안 많
 은 비가 내렸다고 했다. 그 무렵 서
 울은 며칠 동안 매년 한 점 없는 맑
 게 개인 가을 하늘이었다. 할 수 없
 이 오던 길을 되돌아 갈 수밖에 없
 었다. p.55

땅에 떨어지는 낙엽은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맞이한다. 그
 것들은 삶 속에 묻혀 지낼 뿐 죽음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것들은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기
 고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
 들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순
 간순간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환
 출한 뜰이다. p.66

요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자주 들
 쳐보는 크리스나무르티의 <마지막
 일기>(1983년 캘리포니아의 오하이
 계곡에 있는 그의 집에서 녹음기에
 구술해 기록한 것)에 다음과 같은 구



절이 들어 있다.

“만약 우리가 자연, 살아 있는 나
 무들과 수벌과 꽃과 풀과 흙터기는
 구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
 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p.88

며칠 전 이른 아침에 부엌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벌이 날아
 와 내 이마를 쏘았다. 아픔도 아픔
 이지만 이내 퉁퉁 부어올라 불쌍이
 사납게 되었다. 이때 나그네 한 사
 람이 곁에서 이런 나를 보고 입방정
 을 떨었다. 자신에게 쏘아붙인 과보



라는 것이다. 그는 말을 참지 못하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쏟아내는 버릇이 있어, 입은 재앙의 문이니 쓰잘데없는 소리 작작 하라고 몇 번을 타일러주었었다.

이 타이름이 그에게는 쏘아붙이는 말로 고깝게 들렸던 모양이다. 내 성미가 통명스러움을 반성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무심히 뺨은 말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말을 하기 전 먼저 생각을 거둬거둬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의 교훈은 될 수 있는 한 남의 일에 참견도 관심도 가지려 하

지 말 것, 타이르고 싶은 말도 반드시 그 인품을 가려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벌에 쏘인 데에는 별 약이 없다. 암모니아수를 우선 바르고 나서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그중 나은 치료법임을 이번에 터득했다. 누군가는 녹차를 우려 그 물을 바르면 해독이 되고 부기도 가리았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없다. p.141

큰절에 내려가면 가끔 들르는 방이 있다. 내가 그 방에 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 좋아서다. 그 방에는 어디나 있음직한 달력도 없고 휴지통도 없으며, 방 가운데 오직 방석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하고 충만한 그 공간이 마음에 든다. 물론 한 스님이 거쳐하는 방이다.

텅 빈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순수한 현재를 발견하게 된다. p.158

며칠 전 불일로 광주에 나간 김에

무등산 증심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한국제다’에 일부러 들러 차를 좀 구해왔다. 지난 5월 초순한 친지의 집에서 내놓은 차를 마시다가 눈이 번쩍 띄었다. 어디서 구한 차냐고 했더니 ‘한국제다’에서 옛 그제 만든 햇차 ‘감로(甘露)’라고 했다. 금년에 마신 햇차 중에서 내 구미에는 일품이었다. 그 감로, 단 이슬을 조금 전에 한 잔만 마셨다. 두 잔을 마시면 첫잔의 그 황홀한 향취가 자칫 반감될 수도 있으니깐.

아름다움이나 향기로움에는 좀 덜 찬 아쉬움이 남아야 한다. 아름다움이나 향기의 포만은 추해지기 쉽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는 법이다. p.236

뒷등성으로 올라 오리나무 숲을 찾아갔다. 오리나무 숲도 잎들을 어지간히 떨쳐버리고 옹기종기 모여 겨울채비를 하고 있었다. 훨훨 벗어버린 나뭇(裸木)의 숲속을 거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나무들의 체온이 다가선다.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빈 가지로서 있는 나무들에서 도리어 따뜻함을 감촉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느끼기 어려운 그 인간미를, 조출하고 맑은 가난을 지니고 사는 사람한테서 훈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가난은 주어진 빈궁(貧窮)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 맞도록 자기 몫의 삶을 이루려는 선택된 청빈(淸貧)일 것이다. 주어진 가난은 악덕이고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선택된 그 청빈은 결코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다. p.258

얼마 전에 영화 <빠빠옹>을 다시 보았다. 16년만에 다시 본 영화인데도 새로웠다. 그전에는 그런 대사가 있는 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고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인생을 낭비한 죄! 무서운 말이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해왔는가. p.286

옛 집터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터를 돋우어 지어야 한다는데, 산거(山居)를 마련할 무렵의 내게는 그런 예비지식이 없어 일꾼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폭우가 내리면 그때마다 아궁이에서 물이 났다. 높




은 산중에는 폭우가 장시간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생수가 터진다. 터를 돋우지 않고 깎아내면 그 생수의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멧모르고 물이 괴는 족족 퍼냈더니 물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괴었다. 자다가도 걱정이 되어 몇 차례씩 깨어나 부엌에 들어가 물을 몇 동이씩 퍼내곤 했었다. 그대로 두면 아궁이 속 고래에까지 물이 넘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짓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괴는 족족 물을 퍼내면 도리어 물길이 트여 끊임없이 물이 끈다. 그런데 물이 괴면 그 물량에 따라 압

력, 즉 수압(水壓)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량을 넘으면 그 이상 더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뒤늦게 터득했다. 물리시간에 배워서 알 만한 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생활에서 몸소 부딪혀 비로소 산 지식이 된 것이다. p.326

덕숭산 수덕사의 선우도량에서 모임이 있어 가는 도중이었다. 언제부터 한 번 찾아가고 싶었는데, 마침 가는 길목이라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의 옛집을 찾기로 했다. 높지 않은 산자락 양지바른 곳에 고택이 자리잡고 있는데, 근래에 잘 보수되어 빈집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옛 어른들이 살다간 집에서는 뭐라 꼬집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흙과 바람과 환경에서 고풍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저절로 옷깃이 여며진다. 이 집안에서 일어났을 기구한 영욕의 삶을 우리는 날날이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집의 문지방과 기둥과 연목과 대들보와 처마, 그리고 뜰 아래 서 있는 수목들은 죄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런 집과 들레의 바람과 흙이 말할 수 없이 정답게 여겨졌다. p.339 

법정스님 2주기 추모 이사장 말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처럼

德 耘 (스님)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과 길상사 불자님께 지난해 동안 기울여 주신 노력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출가하여 선방에만 다니다 갑작스레 길상사 주지를 맡게 되어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같고, 지난 10월 말, 이사장으로 호선된 후 그동안 “맑고 향기롭게”를 재조직하고 안정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가 바뀐 이즈음에 지난날을 돌아보며 맑고 향기롭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저는 초대 이사장이셨던 법정스님의 사상을 받들고 펼쳐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과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구심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 갈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양모임부터 산만하게 흩어져 운영되었던 사업을 집중된 형태로 바꾸고 이때까지 중양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서로 협력하면서 응집된 힘으로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도 단순한 소식지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읽을거리가 있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편해 나갈까 합니다. 또 지부 상근 활동가들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중앙과 지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와 참선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만하게 운영되었던 기존의 사업들을 정비하고 결집된 형태의 사업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모임이 창립할 때만 해도 사회복지라는 말도 생소하고 복지시설도 대부분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복지가 생활화되었고, 복지시설도 정책적으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모임도 타 시설에 대한 봉사자 파견사업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재가복지사업과 농어촌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중앙모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부가 연계될 때 사업이 더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전개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날로 황폐화되고 오염되어 가는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도 마음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인류가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기심과 그 속에 깃든 삼독심,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점점 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극악한 환경 속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와 적극적인 환경보존운동으로 병들어가는 생태계를 다시 살리고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통하여 본 모임의 목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

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회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법정스님의 근본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종교적이고 범종파적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추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가 연기적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차적으로 추진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로 허물어져가는 생태계를 바로 잡아가는 데에는 연꽃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이 본모임의 상징입니다.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연꽃 같은 향기로 맑고 청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본 모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고 법정스님 2주기 추모법회를 앞두고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이 맑고 향기로우시기를 발원합니다. 

- 법정스님 2주기 추모법회 안내 -

법정스님 2주기 추모법회가 2월 17일(음 1. 26)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병행됩니다.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에 회원님과 신도님 등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시어, 스님 생전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참하는 모든 사부대중을 위해 소중한 선물(맑고 향기롭게에서 법정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 길상사에서 법정스님 선묵이 그려진 다포)을 준비 하였습니다.

특별 기고

서로서로 보듬어

곱다라니 몸들이고 몸드는 삼

변택주

천하동생天下同生, 천하동사天下同死

구한말. 1876년(고종 13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은 일본과 화친하면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적을 물리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외쳤다. 그 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73살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과 전투에서 몇 차례 이긴 선생은 맞닥뜨린 군대가 조선군임을 알고 **“동족 가슴에 총을 쏠 수 없다.”**며 무기를 버리고 잡혔다.

대마도 귀향길. 선생은 대마도로 떠나기에 앞서 아끼는 제자에게 “물 한동이 길어오너라.”고 한다.

그러곤 길가에 앉아 버선 속에 흙을 집어넣었다. 비록 일본 땅에 잡혀

가지만 일본 흙을 밟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대마도로 간 면암선생은 제자가 떠온 물만 마시며 굶어죽는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면암선생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천하동생天下同生’이라고 했고, 선생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천하동사天下同死’ 다 같이 죽었다고 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이 아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고 1년이 지난 1960년. 티베트 독립을 위한 반중국 민간유격대들이 네팔 접경지대인 히말라야 산에 근거를 두고 중국군을 괴롭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티베트 게릴라들이 네팔 지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네팔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네팔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에다

게릴라들을 해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달라이 라마는 당신 목소리를 녹음해 네 팔 산속에 있는 유격대에 게 보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중국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불살생不殺生을 첫째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싸우는 일은 훌륭하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을 펴는 부처님 제자로서 명합니다. 모두 총을 버리고 인도로 망명해 오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끝나자 유격대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과 같은 달라이 라마 존자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장이 총을 버리는 일은 적에게 무릎 꿇는 일이기에 나는 이곳에서 자결을 하겠다.” 하고는 부대를 해산한 뒤 독배를 마시고 삶을 마쳤다.

원망으로써 원망은 갇아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동참하고, 1972년 12월 유신철폐개헌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1973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1975년, 독재 정권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 조작극을 벌인다.

도예종을 비롯한 여덟 인사들을 국가전복기도혐의로 구속, 사형을 언도했다. 그때 법정 스님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은 입을 모아 독재정권 조작극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여덟 사람을 모두 사형시키고 만다.

법정 스님은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조작극이라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불일암을 짓고 산으로 들어갔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더군요. 내 마음에 독을 품는 게 증오심인데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하고 느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게 괴롭고, 중노릇하는 내 본분사가

뛰냐고 스스로 물었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요.”

스님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 뒤에 가진 광주 강연회에서 **“원망을 버려라. 원망으로써 원망은 갚아지지 않는다. 원망을 버리는 길만이 그 원망을 푸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독재정권도, 민중을 착취하는 기업들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민중이 둘이 아니라, 꼭 같이 아우르고 보듬어야 할 존재란 선언이다.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삶

그랬기에 스님은 세상을 거대담론으로만 바꾸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작은 꽃이나 풀잎 하나도 결코 하찮지 않다.

사람들이 본디 마음자리를 찾아 자연과 세상,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눈에 띠지 않는 작은 꽃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삶이 맑고 향기롭게 ‘살림’이다. 동물들 왕이라

고 일컫는 호랑이도, 눈치 구단인 생쥐나 부지런하기론 따를 자가 없는 소도, 가장 잘 생겼다는 말도, 느리디 느린 굼벵이나 달팽이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늘 푸른 소나무나 대쪽 같은 대나무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나 코딱지만큼 작아 코딱지꽃이라 불리며 군락을 이뤄 보랏빛깔 꽃을 피우는 광대수염나물도 나란히 새날을 맞는다.

시인 안도현이 녹색연합에서 펴내는 잡지 <작은것이 이름답다> 2011년 11월호 ‘종이는 숲입니다’ 쪽지에서 나눈 말씀이 떠올라 모신다.

“1980년대는 제가 쓰는 시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서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현실이란 민주화랄지 통일랄지 거창한 주제였어요. 거대 담론 속에 시를 계속 던져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90년대 중반에 시골 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너무 커다란 것들만 쫓아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현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들을 시에 담았죠. 들꽃, 나무,

양철지붕이나 또는 연탄, 뭉치 이런 작고 하찮은 것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큰 기관차가 나사못 하나 빠지면 멈춰서는 것처럼 말이죠. ……슈마허 <작은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17년 정든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로 들어간 스님은 억압하는 자들까지 보듬어 안는다. ‘선택한 가난, 선택한 결핍이란 비우고 던져냄’이다.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는 고마움이, 그리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채우려 들지 마라. 가지려 들지 마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슬기로운 선택,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로움이 들어설 수 없다” 외환위기 때는 이런 말씀도 했다.

찢어지게 가난해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선비가 저녁마다 향을 사르고 천지신명에게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그러기를 여러 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옥황상제께서 그대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게 그대 소원을 들어오라 하셨으니 소원을 일러보라!” 느닷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던 선비는 “제 소원은 그

저 몸이나 가리고 제때 밥걱정 하지 않고 한가롭게 산천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그 말에 옥황상제 사신은 “아니, 그런 낙樂은 하늘나라 신선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데 어찌 그대가 누리기를 바라는가. 부귀富貴를 바란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일세.”라고 했다는데, 작은 것으로 기꺼워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다.

‘맑·고·향·기·롭·게’ 살림

법정 어른스님은 밥값이나 하고 가야했다면서

‘맑·고·향·기·롭·게’ 두 마디 여섯 자를 윤청광 선생에게 내놓았다.

“아니 스님, 어찌라고요?”

“처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스님이 내놓은 화두.

윤청광 선생은 ‘마음·세상·자연’ 세 마디 여섯 자로 화답했다.

꼭지마다 세 가지씩 실천덕목을 달아서

마음을…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삼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나누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
시다.
털 쓰고, 털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화두 풀이 시작은
마음 다스리기다. 개체, 날목숨인 나
는 누구인가? 에서 전체, 온목숨인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이다.
세상과 함께하기는 오늘에 살기, 오
늘을 응글게 가꾸는 삶이다. 자연과
함께 하기는 오늘과 더불어 내일을
함께 살기. 오늘 안에 든 내일 모습
을 살피며 헤아리는 삶이다.

스님은 꽃향기도 흠치지 말라고

하셨다. 꽃에다 코를 들이미는 일은
꽃에 대한 예절이 아니니 걸을 내어
줄 때만 고마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가을에 피는 꽃 용담은 병
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
렇기에 식물도감에서도 용담은 봉
오리인 채인 경우를 흔히 본다. 어
느 해 가을, 스님은 용담에게 “아직
네 방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문 좀
열어주련?”하고 말을 건넨다. 이튿
날 용담은 방문을 열어 은밀한 제
안 살림인 희고 가녀린 꽃술을 곱다
라니 내보였다.

‘가까운 데서부터 한 발 한 발 차
츄차츄 나아가라. 자람은 마음이 이
끈다. 낮추어야 바로 보인다. 본디
높고 낮음이란 없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 **철저히 홀로 되면 외
롭지 않다. 철저히 혼자인 사람은
전체와 하나이기에...**’란 가르침이
맑고 향기롭게란 그릇에 담긴 열이
다.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삶이란 저마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서로 곱다
라니 물들이고 물드는 삶이다. 🌸

번택주님은 소통을 연구하고 국군고양병원 병사들과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市 特區 들은面 열리리 웃길 79에 산다. 펴낸 책으로는 <법정 스님 숨결>과 <법정, 나를 물들이다>가 있다.

스님께 드리는 글

스님!

평안하십니까?



법정넷(<http://www.beopjeong.net>)

‘스님께 드리는 글’에서

책방에서

스님을 뵈었습니다.

우연히 들린 보수동 헌책방에서 스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따로 마련된듯한 책 선반에는 스님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스님

따스한 봄 길목에 목련 매화 개나리
다름없이 마구 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2011. 3. 27 / 무진]

빠비용 의자

궁금했던 그대, 처음 만났을 때
상상 속 모습보다 한결 반듯해서
속으로

미안했는지

안목이 미달이라

거기 그렇게 그리움의 기호들은
살아오신 守本真心, 청정한 삶의 궤적
온종일 햇빛을 안고
스님, 기다리는 듯

‘인생을 낭비한 죄’ 뽀뽀용의 죄목이지
마음은 쓰는 것, 지금 여기 충만한 삶
다시금 일깨우시네.

빠근하게 살거라.

[2011. 4. 3 / 마음고요]

마곡사에서……

비오는 산길을 하염없이 달려 발길 닿는 곳은 마곡사였습니다. 승복 입은 스님들 사이에서 그리운 스승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 번잡하고 번다해서 조용하게 보내고 싶으셔서 이곳을 잠시 떠나 계신가요. 청법가를 다 부르지 못한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그 모습을 우리거사와 아들과 강아지가 또한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축축이 내리는 봄비속의 마곡사를 스님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오늘따라 사찰속의 불자들이 천상의 신선들을 닮아있습니다.

[2011. 5. 15 / 권길상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각박한 속세를 살아가는 한사람입

니다.

늘 가방 속에 범정스님의 책들을 품으며 각박한 세상을 견디며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알게 해주셨고……. 지금을 사는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며, 삶의 울퉁은 방식을 일깨워 주심으로, 항상 저를 가볍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며 한결 평화롭고 자비롭게 하십니다.

매일 스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하늘을 보고 깨닫고
흐르는 물을 보고 깨달으며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되새기곤 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 없는 이 사람에게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와 나눔의 고귀한 진리를 알게 해 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스님을 알았고,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에 살고 있어서 저는 참 복된 사람이란 생각도 듭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힘이 돼 주시는

스님.

[2011. 8. 24 / 선월]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굳터더기 없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앞
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스님, 평안하소서…….

[2011. 5. 16 / 이신영]

자 비

스님을 만나러 오대산을 가던 중
탐심의 늪에 빠져 돌아왔습니다.
붓다를 만나러 가는 길이 왜 이리
탐심이 가득한 꽃밭인지요.
떨기만 합니다. 스님 _()_

목마르면 물이 되고
굶주리면 밥이 되고
고함치면 활짝 웃고
높이 올라가면
낮은 물이 되어 흐르고
등을 돌려 돌아서면
내 안에 먼저 피어있는 꽃이 되는
자비!
그대여
고개 숙여 합장 합니다.

가을에 보내는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떨어진 날~
헤맨 여~자가 아름다워요

세상 속을 헤매다
청정수 같은 당신이
이 가을
문~득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무소유 함이
그 청렴함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가을이니까요

따끈한
작설차라도
한잔하며
미소 짓는 당신을
그려보렵니다.

[2011. 10. 20 / 들꽃]

그리운 법정스님께

가을의 고즈넉한 향기가 깊어만 가는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추위를 재촉하는 비도 내렸 습니다.

스님 오늘도 잘 계셨어요?

스님께서서 계시는 불일암.

그 후박나무 잎새도 비에 젖었겠네요.

이 세상의 큰 어른이셨던 스님께서서 글속에 남기신 지혜를 찾아서 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운 스님!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너무 즐겁게 사셔서 그런 병이 생기셨던 거 같아요. 만약에 길상사에서만 사셨더라면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더운 여름날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쓰신 스님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스님이 그리워집니다.

세상에 큰 사건이 날 적마다 스님께서서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하고 생각해 보기도합니다.

스님! 빨리 환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이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스님! 뵙고 싶습니다.

[2011. 10. 29 / 김혜란]

스님!

법정스님

제가 한없이 괴로움으로 헤매일 때 한줄기 빛처럼 스님의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겼지요.

읽고 또 읽어가며 맘을 다잡고 그러다보니 지금은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게 맘적으로 아버지 같은 분의 입적소식을 듣고는 맘이 허탈 길 없었습니다.

이렇게나마 글로라도 전하고 싶은 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보답으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이라도 뵙 기회 없이 너무 늦게 인연이 되었지만 말씀 한 자 한 자 잘 새기며 살겠습니다.

[2011. 11. 14 / 김시연]

청청한 하늘

평안 하십니까?

스님, 그곳에서도 공사다망하시지요? 송판 의자는 넉넉히 둘 만드셨고요. 그곳에서는 한 자리 더 만드셔서 생택취페리 님도 청하실테고, 마하트마 간디님도.

스코트, 헬렌 니어링 부부도 청하셔

서 스프링버즈를 같이 즐기시고 계실 거라 싶습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장 바닥입니다.

정말 입은 많고 귀는 적고 저마다 마음을 겉으로 안으로 나누어서 사람 따라 그 용도를 달리하여 쓰고 있지요. 행복한 거지가 분명코 존재할 수 있음에도 너나없이 빈 주머니가 가득차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꾸만 밖으로만 마음을 두고는 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 한 소리씩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은 충분히 찻음에도 마치 아무 것도 없는 양 말입니다.

부디, 조금만 저마다 지니고 있는 그 마음 주머니를 제대로 살펴보았으면 싶습니다.

아무도 꺼내 가질 않을 친절 배려 양 보라는 아주 귀한 것들이 모두에게 이미 다 있음을 다시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깊은 가을답게 창창한 하늘 빛이 더없이 맑아 기쁩니다.

마치 스님의 한 말씀 같아서요.

그럼 스님!

더욱 평안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스님의 못난 글 제자가…….

[2011. 11. 19 / 아진]

스님……

가끔 법정넷에 들러 스님의 법문영상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올려 주신 좋은 글귀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스님께 글을 올려봅니다.

부끄럽지만……. 스님과의 인연은 스님께서 집필하신 저서들이 절판된다는 소식과 함께 맺어졌습니다.

절판되면 스님의 책들을 읽기 힘들다는 생각에 13권을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평소 책을 멀리하던 저는 스님의 말씀이 어렵고, 불교에 대해 무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스님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책 속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와도 인연이

되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 조용하게 음미해보면 매우 아
 름다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야 한
 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점도요…….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제 생활은
 많이 변했습니다.
 항상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2011. 11. 21 / 쟁이]

서서 언제나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
 었는데.
 빈 나뭇가지들의 틈 속에서 이 겨울
 에 범정스님의 큰 범향이 더욱 그
 리워집니다.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에서 잘 살
 고 계시는 거죠?
 달사람. 달나라에서 꼭 행복하세요.
 언제나 이 땅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는 안계시지만 언제나 있
 으실 거란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요.
 뵈고 싶고 그립습니다.

[2011. 12. 9 / 초록나무]

겨울 안부

겨울이 왔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가로수
 를 바라다 볼 때 스님 생각이 났습
 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살아계실 것만 같
 은 정신적인 큰 스승님.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책을 읽으며
 큰 힘이 되었고 마음으로 많이 의지
 했었어요.

직접 뵈고 말도 못 나누어 본 것이
 지금도 참 후회가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등불같이 앞길을
 밝혀주시고 바르고 곧게 걸어가 주



茶 **내음 가득한 시간**

신시 내린 영약

인삼벌꿀차 - 2월

오래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연속극 ‘왕건’에서 산삼 한 뿌리가 삼국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고려 왕건은 일생에 한번 만날지도 모를 오래된 산삼 한 뿌리를 백제왕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에게 보내 병을 낫게 했다. 아자개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한 산삼 선물에 감동받아 고려에 귀화하게 되면서 삼국통일은 빨라졌다. 산삼의 위력을 대변하는 구전이다.

예부터 신초(神草), 영초(靈草)로 높여 불렀던 인삼의 이름도 다양하다.

뿌리가 사람의 모습과 닮은 데가 있어서 인삼(人蔘)이라 했고, 땅의 정기를 흠뻑 받은 식물이라 하여 지정(地精)이라 했다. 또 산에서 자라는 자연삼의 경우는 야삼, 야인삼, 노산삼으로 불렀다. 중국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를 다녀가면서 받아간 선물로 고려삼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송나라 뿐 아니라 명나라 때도 조선을 다녀가는 사신들의 손에는 반드시 조선삼(朝鮮蔘)이 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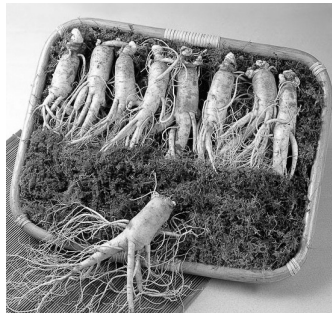
인삼은 제조방법에 따라 말리지 않은 것은 수삼(水蔘)이라 하고, 말린 것은 백삼(白蔘), 열처리해 건조시킨 것은 홍삼(紅蔘)으로 구분 짓는다.

인삼은 본래 산에서 자생하는 산삼만 약재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산삼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령스런 약재로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자, 중국인들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와 깊은 산을 다 뒤져 산삼을 캐가고 말았다. 그러자 조선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삼 경작에 들어갔다. 인삼 재배가 가장 잘되는 지역을 시대별로 나누어 고려의 개성, 백제 금산, 신라는 풍기를 꼽았다.

별꽃은 벌이 꽃의 당분을 소화시켜 몸에서 흡수하기 쉬운 양질의 당질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설탕보다 소화흡수가 빠르다.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며 항균작용도 있다. 인삼차에 꿀을 탈 때는 차의 온도가 70도 정도가 좋다. 차가 뜨거우면 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효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 그리고 꿀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인삼과 같이 몸에 열이 나거나 설사가 심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인삼별꽃차 만들기

- 재료 : 수삼 2뿌리, 꿀 1컵
- 수삼은 씻어서 칼등으로 긁어 껍질을 벗긴 다음 다시 헹구고 물기를 거둔다.
- 줄기와 연결된 부분을 잘라내고 얇게 썬다.
- 소독한 병이나 밀폐용기에 꿀, 인삼, 꿀 순으로 켜켜이 담는다.
인삼이 보이지 않도록 꿀을 듬뿍 덮는다.
- 하루 정도 지나면 숟가락으로 한번 섞어준 다음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 자료 참조
이연자의 우리차, 우리꽃차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박 희 준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국립전주박물관이 있는 왕궁리는 왕궁리성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마한의 도읍지 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도읍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는 옛 궁궐터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왕궁리라 불린다. 그런데 최근에 전



[왕궁리 오층석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이 일본의 문헌을 통해 백제 무왕이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한 사실을 문헌사적 측면으로 규명하여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 신뢰를 얻고 있다.

이 궁궐터 한 가운데 왕궁리 오층석탑이 있다. 왕궁리 오층석탑은 국보 제289호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탑 내부에서 발굴

된 사리장엄구는 모두 1식으로 하여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왕궁리 오층석탑은 1단의 기단과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렸는데 기단은 네 모서리에 8각으로 깎은 주춧돌을 놓고 이 주춧돌을 기둥삼아 그 사이에 길고 큰 돌을 지그재그로 맞물리게 여러 층으로 쌓아올렸다.

탑신은 1층부터 5층까지 탑신부 네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새겼으며, 1층 몸돌에는 다시 면의 가운데에 2개씩 기둥 모양을 조각했다. 지붕돌은 윗면이 평평하게 경사지고 1층의 지붕돌은 기단보다 약간 넓다. 지붕돌 아래의 층급받침은 지붕돌에 새기지 않고 별도의 돌을 올렸다. 주춧돌을 기둥처럼 이용한 점,

탑신부 모서리마다 기둥모양을 새긴 점, 기단과 탑신의 각 면에 기증조각을 새긴 점 등으로 보아 목탑의 형식을 석탑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1965년 오층석탑을 보수할 때 1층 지붕돌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서 녹색의 유리 사리병과 19장의 금판에 새긴 순금 금강경판이 나왔다. 또 금동여래입상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유리사리병과 금강경판은 금으로 만든 사리합에서 함께 나왔고 이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동 주칠 도금 함에 들어 있었다.

사리장엄구들의 형식 및 기단의 구성형식으로 볼 때 이 탑은 백제계 석탑 양식에 일부 신라탑의 형식을 보이는 고려 전기의 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최근에는 이 석탑이 있던 자리에 목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탑은 고려 중기에 세워진 청량사지 쌍탑(남매탑) 중 칠층석탑의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왕궁리 오층석탑이 있는 왕궁리와 관련된 설화도 전해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과부인 어머니와 지룡(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사진 : 문화재청

龍) 사이에서 태어난 서동은 마를 캐어 팔고 살았는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서동요를 만들어 유행시켰다. 이 노래로 인하여 신라의 선화공주가 궁에서 쫓겨나 백제로 오자 서동은 선화공주와 결혼하였고, 이후 진평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서동은 왕이 되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인 서동이 무왕이다, 동성왕이다, 무령왕이다 등 다양한 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문헌사적 측면으로 고증된 것은 없다. 서동요의 주인공이 어느 왕이든 그것은 사학자들이 밝힐 일이고, 나는 오늘 왕궁리 오층석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제 유적지를 찾아 알싸한 겨울바람과 함께 서동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

중앙모임(02-741-4696~7)

2012년 정기 이사회, 대의원 총회

2012년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2월 25일 오후 1시부터 길상사 설법전 회의실과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각 지부의 2011년 사업 결산, 2012년 사업계획, 예결산에 대해 심의·의결, 승인하며, 중앙모임과 각 지부모임의 사업 연대를 통해 본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관에 준하여 지부 회칙을 검토하고 재정비를 위해 논의할 것입니다.

2011년 후원금 미납으로 인한

소식지 발송중지 안내

본모임의 소식지인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2007년부터 연 5,000원 이상(연 최소 우편비) 후원하는 회원님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2011년) 후원 내역이 없는 경우 부득이 2012년 3월호 소식지부터 개별우송이 중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익명으로 꾸준히 후원하신 회원님이 계신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이 있어 후원금이 미납된 경우에도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말벗 2기 봉사자 모집

전화말벗 자원봉사는 결석이웃 후원사업 대상자인 재가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등에게 정기적인(주 1회)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전화말벗 2기 봉사팀을 구성해 3월부터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 주세요.

법정스님 추모법회 봉사자 모집

법정스님의 2주기 추모법회(음1.16)가 2월 17일(금) 오전 11시부터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아울러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안내, 설거지 외)해주실 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는 분은 동참하셔서 맑고 향기로운 인연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중앙모임 상근활동가 인사이동 안내

홍정근 - 사무국장(법인 및 중앙모임 총괄)
이신동 - 사업부장(봉사 및 환경활동 총괄)
김소영 - 자연사업 팀장(환경활동 주간)
최영숙 - 총무 팀장

(법인 및 중앙모임 재무, 회원관리)
이예진 - 세사업업 간사(봉사활동 주간)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 2월 3일(화),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초대 이사장 법정스님 추모법회 / 2월 17일(금), 오전 11시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 2월 2, 9, 16, 23일 / 금 - 2월 3, 10, 17, 24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줄을 일복 처리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주 목요일(2월 2, 9, 16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2월 6, 13, 20, 27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2월 1, 15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송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2월 12, 19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2월 5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

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2월 12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삼투,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 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 / 선착순 7~8명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격주 화, 금요일 의류재활용 리폼 / 세계일화실

2012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

- 추천서 접수 마감: 2012년 3월 24일(토)까지
- 장학생 선정 발표: 2012년 4월 3일(화),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2012년 4월 14일(토) / 길상사 소강당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부산모임(051-898-2672~3)

2월 부산모임 정기 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매주 수요일 / 10:00~12:00
- 장애인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 /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매주 목요일 /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1, 3주 목요일 /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2, 4주 목요일 /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매주 목요일 /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 /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매주 금요일 /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 / 09:30~12:00
-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참선모임
-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참사랑노인건강센터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토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대구모임(053-753-8883)

2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
나누기 / 매주 수요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
시모집
- 소리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
(예정)
- 롬비니동산(장애인 아동 보호시설) 자원봉
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
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
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 / 매주 목
요일 오전 10시~12시
- 운영위원회의 /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경남모임(055-266-0170)

2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 화요일 오전 10~14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 하세요 /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 / 사무국

광주모임(062-236-3129)

2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2시 / 사무실

대전모임(042-823-0770)

대전모임 활동 안내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길상사 소식 - 2월

< 법정스님 입적 2주기 추모법회 >

무소유의 큰가르침을 주시고 입적하신 법정스님의 2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됩니다.

- 일정: 2월 17일(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 입춘기도 >

- 일정: 2월 4일(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 “입춘대길” 입춘첩을 나눠 드립니다.

< 다라니 기도 >

- 일정: 2월 4일(오후 7시~9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 삼천배 철야정진 >

- 일정: 2월 11일
(오후 8시 30분~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설법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죽, 간식 제공)
- ※ 주의사항: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해주세요.

< 시민선방 철야정진 >

철야정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정진시간에 맞춰 길상선원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2월 11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 2월 주말 선수련회 >

- 일정: 2월 셋째 주말 18일(토)~19일(일)
2월 넷째 주말 25일(토)~26일(일)
- 대상: 종교에 상관없이 참선수련 경험 유無 무관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

< 경전반 '달마 혈맥론' 개강 안내 >

- 개강: 2012년 2월 7일
- 종강: 2012년 4월 24일
- 장소: 설법전(매주 화요일 2시)
- 법사스님: 일수스님(법천사 주지)
- 동참금: 5만 5천원(교재비 포함)

※ 법회, 기도, 49재 등 문의:
종무소 (02)3672-5945~6)

※ 수련회, 불교입문, 불교대학 등 문의:
교무실(02-3672-0036)

<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정초기도	1월 25일~2월3일	오전 9시 30분, 오후 2~4시	극락전/설법전
다라니기도	2월 4일	오후7시~9시	극락전
입춘기도	2월 4일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해제 법회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2월 6일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7일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2월 9일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11일	오후 8시 30분~새벽 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2월 11일	오후 9시~새벽 4시	길상선원
관음재일 기도	2월 15일	9시 50분	극락전
법정스님2주기 추모법회	2월 17일	11시	설법전
초하루 기도	2월 22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길상사 소식 - 3월

< 다라니 기도 >

- 일정: 3월 3일(오후 7시~9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 시민성방 철야정진 >

- 일정: 3월 10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 동참금: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 간식으로 죽 공양 합니다.

< 삼천배 철야정진 >

- 일정: 3월 10일
(오후 8시 30분~다음날 오전 4시)
- 장소: 설법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죽/과일 간식 제공)
- 주의사항: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해주세요.

< 3월 주말 선수련회 >

- 일정: 3월 셋째 주말 17일(토)~18일(일)
3월 넷째 주말 24일(토)~25일(일)

- 대상: 종교에 상관없이 참선수련 경험 유無 무관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
(문의: 교무실 02-3672-0036)

< 길상사 봄맞이 대청소 안내 >

움츠렸던 겨울을 털어내고 따스한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봄날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를 더욱 청정한 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정: 2012년 3월 17일(토)
오후 12시 30분

< 길상사 불교대학 제3기 신입생 모집 안내 >

- 개강: 2012년 3월 8일(목)
- 강의 일시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30분
- 수강료: 1년 2학기에 40만원
(학기당 20만원)
- 지원 자격: 기본교육과정 수료자
(ex. 불교입문 강좌 등)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

- 문의 및 접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오후 2시~4시 30분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기초교리 불교입문반 개강 안내 >

- 개강 : 2012년 3월 7일(수)
- 종강 : 2012년 5월 23일(수)
- 일시
주간반 : 매주 수요일


- 수강료 : 7만원(12주)

※ 지장전 인등 접수 안내

길상사 중무소에 방문하셔서 인등 올려주
시기 바랍니다.(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3월 3일	오후 7시~9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3월 10일	오후 8시 30분~새벽 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3월 10일	오후 9시~새벽 4시	길상선원
지장재일 기도	3월 10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3월 16일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3월 22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법정스님이 꿈꾼 맑고 향기로운 세상……

산 속 작은 암자에서 평생 홀로 살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던 법정스님

세상과 떠나 있으면서도
나눔, 소통, 자비의 삶을 통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리고 참된 행복을 일깨워 주셨던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맑고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법정스님 2주기 추모법회

- 2월 17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귀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길상사-법정스님 선묵 다포, 맑고 향기롭게-법정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무소유의 노래”

- 3월 11일(둘째 일요일) / 오후 2시 30분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KBS 아름다운 노랫말 상을 수상하고, 그룹 움직이는 꽃과 함께 매년 ‘연등축제’의 주제를 만들어 부르고 있는 음유시인 김현성 님과 함께 법정스님의 산문을 한 폭의 풍경화로 이야기가 있는 맑고 향기로운 노래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